

폭염 기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잠시 멈춘다

전주시,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민 건강·안전 위해 잠정 연기... 무더위쉼터·경로당 등 순회 소통은 이어가

연일 불볕더위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업무행 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주시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범기 전주시장의 소통 행보인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시 쉬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장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4일 효자동을 시작으로 제21대 대선 일정으로 중단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재개했으나, 최근 2주간 전북지역 전역에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온열질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폭염 기간 잠시 멈춘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8월 19일부터 재개될 예정으로 우 시장은 재개 이후



전주시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범기 전주시장의 소통 행보인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11월까지 매주 2~4개 동을 찾아가는 예정이다.

또한 우 시장은 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민과의 대화는 잠시 멈추더라도 폭염 기간 무더위쉼

터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청 홍보 강화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전주지역 34개

동장들과 함께 ‘2025 동장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장회의는 폭염을 비롯한 여름철 안전대책 추진 현황은 물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추진 등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 1월 21일 호성동 순방을 시작으로 지난 상반기 총 8개의 동을 순방하며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오다 제21대 대선 일정 등으로 인해 잠시 소통 행보를 중단했으며 이달 들어 소통행보를 재개해 지난 4일과 8일 각각 효자동과 진북동 주민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비록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중단되더라도 폭염기간 시민들과의 현장 소통 행보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지역 탄소복합재 전문기업인 ㈜데크카본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잔치’를 펼쳤다.

데크카본, ‘함께장터’ 동참

장애인시설 이용자와 식사 나누며 골목상권 살리기 실천

전주지역 탄소복합재 전문기업인 ㈜데크카본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잔치’를 펼쳤다.

㈜데크카본은 지난 11일 장애인 시설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60여 명과 함께 지역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지역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복지시설 이용자와의 소통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 소상공인이 연대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크카본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해 착한 소비와 나눔 문화가 일상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널리 알릴 나갔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김진혁 작가 ‘예술 애호가의 여행법’ 강연

전주시,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서 초청 강연 진행

전주시는 지난 11일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서 작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김진혁 작가를 초청해 총 2회에 걸쳐 ‘예술 애호가의 여행법’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을 맡은 김진혁 작가는 농업박물관과 소전문화재단 등의 공간에서 문화예술 기획을 맡았으며, ‘큐

레이터의 사생활’이라는 SNS 계정을 통해 예술 에세이 발행과 글쓰기 워크숍 등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또 미술관이 낯선 이들을 위한 도서 ‘미술관을 좋아하게 될 당신에게’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예술 애호가의 여행법’을 주제로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김

작가는 미술관과 갤러리, 아트페어 등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도시를 여행하는 예술적인 방법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1회차 강연에서는 서울과 광주, 부산 등 미술관 안과 밖을 중심으로 한 예술 여행 방법을 소개했으며, 이어 2회차 강연에서는 작가가 40일 동안 도쿄에 머물며 찾았던 도쿄

의 예술 공간을 공유했다.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은 이번 강연에 이어 오는 22일에는 여름휴가를 앞둔 시민들을 위해 ‘소설가 김남주와 같이 하는 부산 여행’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9월과 10월에는 각각 몽골 여행과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주제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앞으로도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의 차별화된 여행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시민들에게 여행의 즐거움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중화산2동·마을계획추진단·꽃두령마을, 농산물 나눔

전주시 중화산2동(동장 최정미), 마을계획추진단·꽃두령마을(대표 전덕일)은 주민센터 옥상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을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함께 나누는 ‘사랑의 농산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추, 고추, 오이 등 여름 작물이 수확되어,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에게 정성껏 전달되었으며, 도심 속 작은 공간에서 자란 농작물에 담긴 이웃의 정이 함께 전해졌다.

전덕일 대표는 “옥상텃밭은 단순히



농작물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정을 이어가는 장소”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진북동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 반찬 나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진우봉)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이) 회원들은 지난 10일 진북동 주민센터(동장 조배수)에 방문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 50세대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진북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는 진정으로 이웃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봉사 모임으로,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전달, 장애인시설 후원금 전달, 이웃돕기 물품 전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우봉 진북동 새마을협의회장과 이순이 새마을부녀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 되었으면 좋겠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스마트 씬 아카데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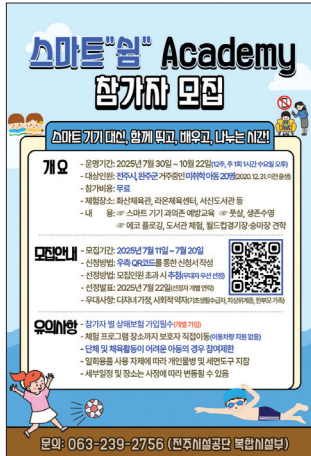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난 11일 공단에 따르면 라온체육센터는 전북스마트씬센터, 전주시립서신도서관과 함께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1시간씩 스마트 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잠시 멈추고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교육과정으로 풋살과 생존수영, 도서관 체험, 예교 플로깅 등 다양한 실내·외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도록 기획됐다.

공단은 11일부터 20일까지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



상으로 아카데미에 참가할 총 20명을 모집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